

호라이

서현 글 · 그림

※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초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제	일상의 사물 낯설게 보기로 상상과 변형하기
권장 차시	5차시
대상 학년	5~6학년
관련 주제어	낯설게 보기, 상상, 변형, 창의적 발상
교육 과정 연계	국어 (6국05-03) 비유적 표현의 특성과 효과를 살려 생각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6국05-04) 일상생활의 경험을 이야기나 극의 형식으로 표현한다. (6국05-05)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미술 (6미01-02) 대상이나 현상에서 시각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6미02-01) 표현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탐색할 수 있다. (6미02-02) 다양한 발상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다. (6미02-03)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작성: 백암초등학교수정분교 김선정 선생님

■ 도서 소개

밥 위에 있던 호라이는 순간 이동을 하듯 자유롭게 시공간을 날아다닙니다. 아이의 머리 위에 모자인 척하다가 잠자는 아빠 위에 이불이 되기도 하고 달리는 자동차 위에 올라가 롤러스케이트를 타듯 포즈를 취하며 바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아이의 영덩이 밑에 깔려서 죽었다가 다시 수박에서 환생하는 호라이를 보세요. 예측불허와 점입가경의 순간들입니다. 호라이는 시치미를 뚝 떼고 어디로든 날아갑니다. 호라이의 기발하고 엉뚱한 모험이 왜 이리 즐거울까요? 작가는 그림 한 컷과 짧은 한 문장을 놓고 마치 그림책 공간이 혼자 놀기엔 넓으니 독자에게 함께 놀자고 손을 건네는 것 같습니다. 『호라이』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감각을 열고 작가가 만들어 놓은 흐름을 따라 몸을 맡기면 호라이의 모험에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책입니다.

■ 학습 목표

- 일상 속 사물을 상상하고 변형하여 표현할 수 있다.
- 그림책을 감상하며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 ‘낮설게 보기’로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 속 사물을 다른 사물로 전환시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을 관찰하고 사물의 생각을 상상할 수 있다.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상의 사물에 관한 시를 쓸 수 있다.
-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작품을 만들 수 있다.

■ 수업 준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의 사물을 ‘낮설게’ 보는 활동은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창의적 발상에 도움을 준다. 사물이 원래 가진 성질, 형태, 기능 등을 관찰하고 발전시켜 사물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는 활동은 사물과 사람을 넘어 서로 공감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작가가 평범한 반찬에 불과했던 계란프라이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상상하고 모험하는 이야기를 만들었듯이 학생들 또한 이 수업을 하며 평범한 일상 속 여러 사물들을 관찰하고 낮설게 봄으로써 사물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존재들로 상상하고 변형할 수 있을 것이다.

수업 준비물 일상의 사물(연필, 지우개, 종이컵, 페트병, 리모컨, 숟가락 등), 계란프라이 사진 또는 그림, 참고 작품(크리스토프 니먼), 도화지, 풀, 가위, A4용지, 가위, 테이프, 솜(비닐), 비닐팩, 스펀지, 색칠 도구 등

■ 학습 과정

단계	주요 활동	차시
책 읽기 전	「이것은 ○○이다」 사물 변형 놀이하기 - 일상 속 사물을 상상하고 변형하여 표현하기 읽을 책 소개하기	1차시
책 읽으면서	그림책 보며 이야기 나누기 - 그림책 속 그림만 보며 무엇으로 보이는지 이야기 나누기	2차시
	「내겐 너무 낮선 계란프라이」 활동하기 - ‘낮설게 보기’로 우리에게 익숙한 ‘계란프라이’를 다른 사물로 전환시켜 그림으로 표현하기	3차시
책 읽은 후	「시(See)시(詩)한 사물 이야기」 활동하기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물에 관한 시 쓰기	4차시
	「말랑말랑 사물 스퀴시 만들기」 활동하기 - 일상 속 사물을 캐릭터로 한 ‘스퀴시’ 장난감 만들기	5차시

책 읽기 전

1. 「이것은 ○○이다」 사물 변형 놀이하기

- ① 일상 속 사물(연필, 지우개, 종이컵, 페트병, 리모컨, 숟가락 등)이 든 상자를 준비한다.
- ② 상자 속에서 사물 한 가지씩 꺼내어 사물의 원래 쓰임새와 다르게 사용하는 동작을 보여 준다.
예) 숟가락을 사용하여 기타처럼 연주하면 기타가 되는 것이다.
리모컨을 귀에 대고 통화하는 시늉을 하면 휴대전화가 된다.
- ③ 한 사람씩 돌아가며 상자에서 물건을 꺼내어 문제를 내고 나머지 친구들은 어떤 사물에 대한 설명인지 맞힌다.
- ④ 무엇을 표현할지 생각이 나지 않을 경우엔 “통과.” 하고 지나갈 수도 있다.
- ⑤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고갈될 때까지 반복하면 좋다.

※ 활동 Tip: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을 선택하여 변형 놀이를 할 수도 있다.

- 혼자서 하다 인원을 점점 늘려 2~3명이 함께 아이디어를 내어 극으로 만들 수도 있다.
- 모둠별로 각자 선택한 사물을 다양하게 변형시키고 그것을 이용하여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만든다.

선택한 사물 외에도 공간에 있는 다양한 사물들을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변형된 사물의 무게, 형태, 질감까지도 표현될 수 있도록 하며 물건을 사용할 때의 표정까지 살려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 사물의 개수를 줄이고 보자기, 신문지 막대 등 형태 변형이 쉬운 한 가지 사물만 가지고 놀이를 할 수도 있다.

※ 더 나아가기: 출제자가 1~3단계에 걸쳐 동작을 할 수도 있다.

- 1단계: 사물을 사용하는 상황을 아무런 소리 없이 정지된 동작으로 설명한다.
- 2단계: 사물을 사용하는 상황을 발을 떼지 않고 설명하되 한 가지 효과음(의성어)만 넣어 설명한다.
- 3단계: 사물을 사용하는 상황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설명하되 대사를 넣어 즉흥극으로 설명한다.

2. 읽을 책 소개하기

- 표지 그림을 가리고 ‘호라이’라는 제목만 보고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예측해 본다.
- 제목을 확인한 후 왜 ‘프라이’가 아닌 ‘호라이’라 지었는지 이야기 나눠 본다.
- 앞면지를 보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미리 상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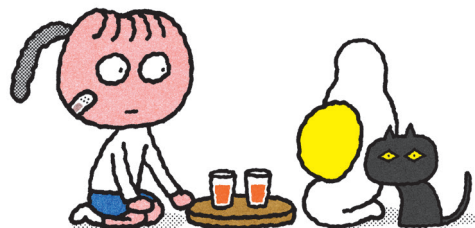
책 읽으면서

1. 그림책 보며 이야기 나누기

- 그림책 속 장면들의 글을 포스트잇으로 가리고 그림만 보며 ‘호라이’가 무엇으로 보이는지 이야기 나눠 본다.
예) ‘호라이’가 머리 위에 있는 장면: 모자로 보인다.
‘호라이’가 아빠 위에 있는 장면: 이불로 보인다.
- 글과 함께 보며 ‘호라이’의 이동 과정을 살펴본다.
- 고양이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본다.
- 밥 위에 있던 ‘호라이’가 왜 이동하는지 상상하여 이야기 나눠 본다.

2. 「내겐 너무 낮은 계란프라이」 활동하기

-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익숙한 사물을 발상의 전환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한 아티스트의 작품을 살펴본다.
예) 크리스토프 니먼(Christoph Niemann), 작가의 작품은 @abstractsunday 참고.
<뉴욕> <타임> <와이어드> <뉴욕 타임스>의 표지를 장식하는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이자 그래픽 디자이너다. 2008년 7월부터 <뉴욕 타임스> 블로그에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주변 사물을 위트 있게 재해석한 비주얼 칼럼 ‘일요일의 스케치’를 연재했다. 창작자의 고충과 극복 과정을 솔직하게 보여 준 칼럼으로, 연재 내내 SNS는 물론 수많은 독자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았고, 2016년에는 서울디자인위크에 초청받아 한국 독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 ‘낮설게 보기’를 하며 우리에게 익숙한 ‘계란프라이’를 다른 사물로 전환시켜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
예) 눈 위의 계란프라이 → 안경, 눈동자
바다(산) 위의 계란프라이 → 해
자전거 위의 계란프라이 → 자전거 바퀴
바닷속의 계란프라이 → 해파리 등
- 자신이 표현한 작품에 대해 ‘도슨트’가 되어 친구들에게 소개한다.
※ 도슨트(docent):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인
-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소감을 나눈다.



책 읽은 후

1. 「시(See)시(詩)한 사물 이야기」 활동하기

- 우리에게 익숙한 사물 ‘계란프라이’를 관찰하여 작가가 그림책을 만들었듯이 우리에게 익숙한 사물을 유심히 관찰하고 사물의 생각을 상상하여 ‘시’와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

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물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리모컨, 휴대전화, 연필, 지우개, 가방, 시계, 거울 등)

※ 활동 Tip: 교실 안 사물뿐만 아니라 교실 밖에서 보이는 사물들도 함께 생각해 보게 한다.

② 관찰할 사물 한 가지를 선택한다.

③ 사물을 자세히 관찰한다.

④ 사물의 이름, 사물이 지닌 외적 특징과 기능을 생각해 본다.

예) 연필: 끝이 뾰족하다/길다/가늘다.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데 사용한다.

사용하면 할수록 키가 작아진다/ 힘을 주면 심이 부러진다.

잘못 쓰면 지우개에 의해 지워질 수 있다 등.

※ 활동 Tip: 사물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을 최대한 많이 적을 수 있도록 한다.

⑤ 만약 사물이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자신이 하는 일, 자신을 대하는 다른 사물 또는 사람들의 태도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할지 상상해 본다.

⑥ 사물의 생각이나 느낌을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와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

※ 활동 Tip: 사물이 가진 특징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다른 사물이나 상황에 빗대어 시로 표현한다. ‘~같이’, ‘~처럼’, ‘~듯이’, ‘~인’과 같은 말을 이용하여 표현한다.

예)

연필

엄태현 학생

날 자꾸 쓰지 마

내 키가 자꾸 작아지잖아

지우개야,

동생처럼 자꾸 방해할래?

그럼 나도 너 힘들게

계속 낙서해 버린다

2. 「말랑말랑 사물 스퀴시 만들기」 활동하기

- 일상 속 사물을 한 가지 선택하여 ‘스퀴시’ 장난감을 만든다.

※ 스퀴시(squish): ‘부드러운 것을 으깨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유래한 말로 손으로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놀이할 수 있는 장난감이다.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촉감이 특징이다.

종이 스퀴시 만들기

- ① 그리고 싶은 사물을 한 가지 선택한다. 시로 표현했던 사물도 좋고 새로운 사물도 좋다.
- ② 종이를 반으로 접고 앞면과 뒷면에 그림을 그리고 색칠한다. 사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거나 캐릭터로 표현해도 좋다.
- ③ 숨을 넣을 공간만 남겨 두고 앞면과 뒷면을 박스테이프로 감는다.
- ④ 그림 테두리를 따라 오리고 숨을 넣는다.
- ⑤ 숨을 넣은 구멍을 테이프로 막는다. 손으로 만져 주며 모양을 잡는다.

반짝이 비닐 스퀴시 만들기

- ① 비닐팩 안에 반짝이 비닐을 적당한 양만큼 넣는다.
- ② 비닐팩을 동그랗게 만든 뒤 테이프로 구멍을 막는다.
- ③ 테이프로 자신이 만들고 싶은 사물(캐릭터)의 몸통 모양을 잡는다.
테이프를 조금씩 잘라 조각하듯이 붙여 모양을 만든다.
- ④ 네임펜으로 사물(캐릭터)의 표정을 그린다. 표정 스티커를 사용해도 좋다.
- ⑤ 표정을 그린 부분을 다시 테이프로 감싼 뒤, 손으로 만져 주며 모양을 잡는다.
비닐팩을 추가로 이용하여 팔과 다리 등을 만들어 붙여도 좋다.

스펀지 스퀴시 만들기

- ① 스펀지를 사물 모양으로 자른다.
예) 수박, 식빵, 모닝빵 등.
- ② 원하는 색으로 색칠한다.

- 친구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감상한다.

- 활동 소감을 나누며 일상 속 사물을 대할 때 자신의 시각이나 태도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눈다.

예) 일상 속 사물이 다양한 형태로 변형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사물이 평범하게 보이지 않는다.

사물을 보며 다양한 상상이 떠오른다 등.